



다문화 어울림마당 13일 오후 1시께 조선대학교 전자정보공과대학 IT홀에서 '2016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어울림한마당'이 열렸다. 조선대 언어교육원과 한국어민 재단이 주최한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어 말하기와 다문화예술 발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학교→방과후 수업→학원... 고단한 초·중생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지수 16개 시·도 중 광주 10·전남 11위

광주 수면 부족 호소 최다...전남 나홀로 아동·만성질환 1위

초등학교 4학년 A(10·남구 주월동)군은 하루하루가 고단하다. 오후 5시께 학교 수업과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집에 들어간단한 식사를 마치고 학원으로 직행한다. 2년 전부터 시작한 영어와 수학 학원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오후 9시가 훌쩍 넘는다. A군이 잠자리에 드는 시간은 밤 11시 쯤이다. 학교와 학원 숙제를 끝내는 데 1시간이 넘게 걸리기 때문이다. 숙제에 대한 스트레스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광주 초·중학생 '아동권리지수'가 전국 7대 특·광역시 중 최하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 학생들은 학교 수업 외 공부시간이 많고 수면시간이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13일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가 발표한 '아동권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의 '아동권리지수'는 각각 97.9점과 96.9점으로, 전국 16개 시·도 중 각각 10위와 11위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6~7월 전국 초등학교 4·6학년과 중학교 2학년, 학부모 등 1만8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굿네이버스는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등 4개 영역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권리지수를 점수화했으며 지수가 100점 이상이면 평균보다 높다는 뜻이다.

전국에서 아동권리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107점을 받은 부산이었다. 이어 대구(105.7점), 울산(104.9점), 서울(103.8점), 대전(103.6점), 강원(103.2점) 순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인천(100.7점)에 이어 특·광역시 최하위를 기록했다.

특히 광주의 경우 '학교 수업 외에 학원 등에서 하는 공부시간이 많다'고 답한 학생들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23.8%로 조사됐다. 이어 울산(21.9%), 경북(19.5%), 충남(19.4%) 순이었으며 전국 평균은 18.3%로 집계됐다.

■ 전국 16개 시·도 아동권리지수

부산	107.0
대구	105.7
울산	104.9
서울	103.8
대전	103.6
강원	103.2
경기	101.0
인천	100.7
경남	100.0
광주	97.9
전남	96.9
충남	96.4
경북	96.1
충북	95.2
제주	94.0
전북	93.7

광주지역 학생 3명 중 1명(33%)은 수면이 '매우 부족하다' 또는 '부족하다'고 답하는 등 '수면시간 부족'을 호소하는 학생 비율도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광주 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 지수는 45.4점으로 충북(45.8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고, '놀이 및 휴식시간 부족'을 호소하는 학생 비율도 24%로 제주(28.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지역 학생들은 방과 후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방과 후 혼자 지내는 날이 3일 이상'이라고 응답한 전남지역 학생은 모두 27.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전국 평균은 21.4%였다.

'천식, 아토피 등 만성질환 유병률'도 전남의 경우 20.6%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질병·사고 등으로 인한 입원한 경험에 있는 학생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11.3%로 전국 평균(6.2%)의 2배에 달했다.

한편 14일 서울에서 열리는 '2016 굿네이버스 아동권리 포럼'에 참가하는 광주 수장초교 김민영(5학년) 학생은 사전 주제발언문에서 "아동에게 가장 중요한 권리는 '놀이 권리'라고 생각한다"며 "놀면서 친구들과 친해지고 단짝도 생기고 친구들 간의 공동체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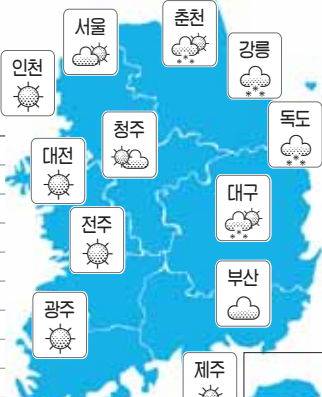
해돋이 07:33
해질녘 17:56
해진 17:21
달진 07:17

체감온도 '뚝'

낮부터 기온이 큰폭으로 떨어져 추워지겠다.

◇ 지역별 날씨 (℃)

광주	맑음	0/6	보성	맑음	0/5
목포	구름많음	2/5	순천	맑음	2/7
여수	맑음	2/7	영광	맑음	0/5
나주	구름많음	-2/6	진도	구름많음	3/5
완도	구름많음	4/6	전주	맑음	-2/5
구례	맑음	-2/5	군산	맑음	-1/4
강진	맑음	2/6	남원	맑음	-4/5
해남	구름많음	3/5	축산도	구름많음	3/5
장성	맑음	-3/5			



◇ 바다 날씨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북서~북	2.0~4.0	북서~북	2.0~4.0
남부	북서~북	3.0~4.0	북서~북	3.0~5.0
남해	북서~북	1.0~2.5	북서~북	1.0~2.5
서부	북서~북	2.0~4.0	북서~북	2.0~4.0
남부	북서~북	3.0~4.0	북서~북	3.0~4.0

◇ 생활지수

뇌졸중	높음
감기	높음
체감온도	관심

◇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7:08	01:43
	19:47	14:30
여수	02:42	09:18
	15:20	21:27

◇ 주간 날씨

15(목)	16(금)	17(토)	18(일)	19(월)	20(화)	21(수)
☁	☁	☀	☀	☁	☀	☀
-2/4	-2/4	-3/9	-1/11	2/11	5/12	3/10

광주변호사회 신임회장 최병근 변호사

제54대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에 최병근(54·연수원 26기·사진) 변호사가 선출됐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12일 임원 선출을 위한 '2016년도 정기 선거'를 실시, 단독 입후보한 최 변호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감사에는 서정암(54·연수원 26기)·신광식(51·연수원 29기) 변호사가 뽑혔다. 회장과 감사의 임기는 내년 1월23일 제70차 정기총회부터 2년간이다.

최 신임 회장은 "시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사랑받는 변호사회를 만들겠다"며 "1기업 1변호사 제도를 정착시켜 중소기업에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액사건에 대한 변호사 상담



창구를 적극 홍보해 시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화순 출신으로 광주대동고·전남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광주변호사회 공보이사·국제이사·사업이사·제1 부회장을 지냈다. 사회활동도 활발히 전개해 화순YMCA 이사장, 광주전남민주 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다. 현재 광주시 소청심사위원장, 광주지법 민사조정위원,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한국전력공사 고문변호사 등을 맡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

5·18 당시 총알·탄피 시민이 기증

재단, 국과수 분석 의뢰

광주의 한 시민이 36년간 보관해온 5·18 민중항쟁 당시 사용됐던 총알과 탄피를 기증했다.

전일방송(광주일보 전신인 전남일보 자회사)에서 근무했던 시민 김모(62)씨는 13일 1980년 5월 당시 전일빌딩 건물에서 주위 보관해온 총알 1개와 탄피 8개를 5·18 기념재단에 기증했다. 해당 총알과 탄피가 계엄군의 것인지, 시민군의 것인지 여부

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5·18 재단은 밝혔다.

김씨는 이날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에서 진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현장조사 현장을 찾아 재단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국과수는 '5·18 당시 계엄군 총탄 흔적을 찾아 보존해야한다'는 5·18 단체와 광주시의 요청을 받고 전일빌딩 안팎에 총탄 흔적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5·18 재단은 건네받은 탄피와 총알의 제작연도 분석을 국과수에 의뢰했다. /김형호기자 khh@

청소년 멘토 나선 광주·전남 신지식인

교수 등 107명 내년부터 인성·진로교육

광주·전남지역 사회 지도층 인사와 전문가 100여명이 중·고등학생들의 멘토로 나섰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을 이룬 명사들이 학생들에게 자신이 겪어온 생생한 경험을 들려주고 꿈을 이루도록 격려해줄 예정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교육청 중회의실에서 (새)한국신지식인협회 광주전남권역 협회(회장 선권석 한국폴리텍대 교수)와

협약을 체결, 중·고등학생들의 꿈·진로 탐색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신지식인협회가 선발하는 신지식인 인준은 사회 각 분야에서 새로운 발상으로 지식을 창조하고 가치를 창출해 창조경제를 이끌어가는 인물을 선별, 시상하는 제도다. 광주전남권역협회에는 107명이 신지식인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 서구청 페이스북 백혈병 아동 돕기 캠페인

‘좋아요’ 누르면 1000원 적립

광주시 서구는 이달 28일까지 구청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백혈병 어린이 돕기 희망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구청 페이스북 계정을 방문해 '좋아요'나 '공유' 버튼을 누르면 후원금 1000원이 적립된다고 덧붙였다. 적립된 금액은 서구 복지정책과 한가죽나눔분과 민간위탁자들이 심심일만 자비를 모아 백혈병 아동 윤모(12)양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지난 2013년 백혈병이 발병한 윤양은 2년 2개월 동안 이어진 치료 끝에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올 2월 재발했다. 윤양 아버지는 지난 2010년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일용직 노동을 하는 흠여머니와 함께 힘겹게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다.

조혈모 이식 수술을 받고도 건강이 호전되지 않은 윤양은 10개월째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 서구는 지난 9월에도 자신 바지를 열어 모금한 5000만원을 윤양 가족에게 건넸다. /김형호기자 khh@

창사 40주년, 특별大행사

보청기 1+1 무료!!

보조금 (최대 131만원) 맞춤렌탈 구입

특전 배터리 5년동안 무료!! A/S 3년동안 무료!!
(렌탈 표준 가입비 없음)

50% 특별大할인

양쪽으로 잘 듣고 활짝 웃으세요!!

광주 직영점 062)430-8900

순천·여수 직영점 061)741-4880 전주 직영점 063)251-4999

대한보청기
DAEHAH HEARING AID
www.maxo.co.kr

◆장안본사 02)2248-5600 ◆중로본점 02)743-8100 ◆강남본점 02)542-8500 ◆송파·잠실본점 02)420-2090 ◆영등포본점 02)2637-2800 ◆관악본점 02)3285-7600 ◆인천(부평)본점 032)516-2200 ◆수원본점 031)248-7200 ◆안양본점 031)442-2400 ◆분당본점 031)707-5787 ◆일산본점 031)917-1100 ◆의정부본점 031)840-2001 ◆구리본점 031)551-1310 ◆안산·시흥본점 031)407-2999 ◆천안·아산본점 041)522-1400 ◆청주본점 043)225-2900 ◆대전본점 042)486-9944 ◆대구본점 053)253-4400 ◆대구서부본점 053)657-3700 ◆대구북구(칠곡)본점 053)311-7900 ◆포항본점 054)231-8070 ◆강원(원주)본점 033)731-2114 ◆부산본점 051)819-0038 ◆부산북구(덕천)본점 051)335-7800 ◆울산본점 052)256-9050 ◆창원·마산본점 055)222-3050 ◆광주·전남본점 062)430-8900 ◆전북(전주)본점 063)251-4999 ◆순천·여수본점 061)741-4880